

尙州 化西面の 石佛

秦 弘 燮

앞서 紹介한 化寧 石佛(註)의 西方約 1km 되는 尙州 化西面 上龍里 上鳳部落에 또 하나의 石造 菩薩立像이 있다. 이 石佛도 部落後面「불당골」(佛堂谷)에서 移置한 것이라고 한다.

이 石佛은 現在 東向하고 있으며 높이 二·二一m 두께 〇·二七m 上部 넓이 一·一一m 의 岩石의 一面에 桴 彫刻되었다. 相當히 큰 二重圓形 頭光이 岩石 上半部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光背의 徑은 外圓이 一〇二·九cm 이고 內圓이 八〇cm 이며 內圓의 幅은 七·六cm 이다. 그 안에 比較的 肥鈍한 머리와 頭光圓의 半을 차지한 異狀한 冠이 있다. 頭上에 거의 圓의 中心에서 가로 잣모양으로 一線이 그어졌으며 밑에는 左右에 술모양으로 늘어진 것이 있다. 그 위에는 中央에 圓과 左右에 半圓形이 있고 위에는 다시 가로 線이 있어 마치 四角形을 한 모퉁에서 본 것을 나타낸 듯하다. 顔面에는 다만 코만이 뚜렷할 뿐 다른 部分은 明瞭하지 않다. 두 어깨로 寶髮이 늘어졌으며 두 팔에 걸친 天衣 자락이 밑에서 뽀족히 나타났고 몸에는 左側에서 斜線이 여러 줄 右下함으로서 衣紋을 나타내고 있다. 右手는 胸前에 들어서 花枝를 잡은 듯하며 左手는 臍前에서 上掌하고 있다. 岩石은 地下에 約一尺可量 묻힌 듯하다.



身光은 岩石의 크기 때문에 表現할 餘裕가 없어서 省略한 듯하다.

本石像은 매우 平板的으로 되어 버렸으나 다만 冠이 異狀하다. 肢體나 衣紋은 佛像이지만 冠의 모양으로 해서 或呪術의 人像과의 混合인 것 같은 錯覺을 준다. 이 冠의 모양은 開城 水落洞古墳壁畫 或은 長端 法堂 坊古墳壁畫 등의 人物像의 冠과 類似함을 볼 수 있다. 頭上의 中央圓과 兩側 半圓은 確實히 三面冠의 形態를 남긴 것으로 從來의 菩薩花冠表 現形式에 當時 上流階級들이 着用하던 冠形式을 模倣하여 加味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그 製作年代도 十一、二世紀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頭光의 表現形式, 顔面의 輪廓 또는 衣紋處理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適當하리라고 생각된다.

像高 一九八cm 肩幅 七六·八cm 頭高 六六cm 冠高 三六·二cm

(註) 本誌 第二卷 第六號 拙稿 參照

資料

◎ 青陽 長谷寺 鐵造 如來像 腹藏 重修記文

李殷昌

南無新重修像「東方滿月世界藥師瑠璃光佛藥師會上諸佛諸菩薩」康熙三十四年乙亥四月日佛像更重記文

大化士 碩德 明哲 大施主 嘉善大夫 碩德義眞 樑布施主 比丘 戒湖 綠化秩 證明碩德 印謙 畫員 碩德 冲衍 梵行 養供主 比丘 慈敬 勝暉 別座 比丘 清遠 (白紙墨書上大雄殿所在 本紙 一一·二九—欄參照)

◎ 崇福寺 碑片

洪思俊

慶州博物館에는 計五片이 所藏되어 있는 바 그 中發表(末松保和博士「新羅史研究의 近況」所收圖版)된 二片以外的 三片은 다음과 같다.

① 人「尉兼持」□川(四行, 橫 一一·五cm) (一九三一年八月二三